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 발굴 집중

무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회의 개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청사진 세우

무주군이 민선 8기 무주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무주군은 21일 재난상황실에서 무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위원장 유호연 부군수(사진)) 회의를 갖고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는 부서관 일자리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비전을 갖고 사업비 52억 4,400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고용률 70%대 유지(22년 74%), 1만2,213명(4대보험 미가입자 포함)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군의 일자리 창출 부문별 추진과제를 보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미스매칭 해소 및 직업 능력 훈련 부문은 무주군로컬JOB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내 산업체 취업 신규자(민간일자리)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청사진을 세웠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 민간일자리 분야는 청중장년의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군은 18개 직접일자리사업에 269명, 공공일자리 11개 사업에 1만7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훈련 및 서비스 분야에는 4개 사업 1,2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남북 무소속 단체장,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부 장관실에서 열린 도시락 오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의 기를 살려줄 것을 강조했다.

“호남지역에 제대로 된 힘 실어달라”

황인홍 무주군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남북 무소속 단체장,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부 장관실에서 열린 도시락 오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의 기를 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줄 것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말문을 연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지역발전 문제부터 예산, 각종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서 호남은 늘 변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도 자생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호남지역에 제대로 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또 “자생력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 발굴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키워지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는데 열악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주군의 경쟁력은 태권도에서 나온다고 말한 황 군수는 “무주군민 행안부 장관실에서 열린 도시락 오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의 기를 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말문을 연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지역발전 문제부터 예산, 각종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서 호남은 늘 변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도 자생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호남지역에 제대로 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또 “자생력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 발굴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키워지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는데 열악한

도내 신규공무원, 장수군서 현장체험 교육 실시

장수군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의 협업으로 지난 20일 도내 14개 시군 신규공무원 106명이 장수군을 방문해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수향교, 논개사당, 가야홍보관, 장수승마장 등 장수군의 다양한 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하며 다채롭게 진행됐다. 신규공무원들은 역사체험 교육을 통해 장수군의 역사와 얼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으며, 승마장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체험교육 시작 전에는 이종훈 부군수가 현장에 찾아 신규공무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장수군의 역사와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해 교육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으며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종훈 부군수는 “장수군은 논개, 한우랑사과관 축제, 한우 등이 대표 관광자원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수군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직생활에서 전북과 자기 자신의 발전에 열정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개신창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 열 것”

진안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가져

진안군(군수 전춘성(사진))은 21일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중점 추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제시하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이 새로운 진안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시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군은 정부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정부 기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새롭게 변화하는 계획도시 조성, △진안농업 혁신전략 추진으로 군민 수익 창출 위한 대표품목 육성,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역 특산물 제공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제 육성,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각 향상,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으로 지역교육 발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제육성, △용담댐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가고실고 찾고싶은 휴양관광 정책 추진, △양방향 소통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2023년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바쁜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뜻처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전해 나가는 정책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놀러오세요”

2022 마이산 겨울동화축제가 23~25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추운 겨울은 가족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얼음 미끄럼틀과 가족걸림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칭밴드와 핸드벨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동심을 일깨우는 동화나라 포토존과 함께 다양한 겨울철 먹거리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다양한 이벤트와 경

품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스탬프 투어는 사진 콘테스트 참여와 역사박물관·가위박물관 퀴즈 미션 그리고 가위박물관 기획전시 관람으로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탬프 체험 장소에는 스탬프 체험 외에 개별 체험 프로그램과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진안군 자원봉

사센터가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를 함께 열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해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추운 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워터 마린과 홍삼떡볶이 나눔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풍성한 축제로 다가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열리는 마이산 겨울동화축제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장수군 청년창업 한마당 기업맞춤형 채용행사 개최

장수군은 21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 로컬JOB센터와 함께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2년 장수군 청년창업 한마당&기업맞춤형 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수미업마생각 감치, (주)에이일콘크리트, 밀알노인복지센터 등 장수군 내 5개의 기업체와 솜씨, 사계, 장금이부각, 소담화, 꼬꼬베어 등 7개 청년창업 업체가 참여했으며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군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직 상담도 함께 이뤄졌으며, 장수군 내 청년 창업자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친절 위생업소 2개소 선정·포상

진안군은 21일 하반기 친절 위생업소 포상 대상으로 섬바위가든(용담면)과 꼬꼬족발(마령면) 2개소가 선정됐다. 군은 지난 7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포상 후보에 오른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위 2개 업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는 친절업소인인증서 수여 및 친절업소 현판이 부착되고, 부상으로서는 각 5백만원 상당의 진안외원행복상품권이 지급된다. 친절위생업소는 진안군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중에서 주민추천을 받아 △친절도 평가(주민 온라인 투표, 위원평가) 50점, △현장조사 평가(건물환경, 위생관리 등) 50점, △가점요소 각 3점(행복상품권 가맹점 가입, 장애인 편의시설 자율설치) 등 각 분야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집계되고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그동안 군은 친절업소포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2일간 주민추천을 받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후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